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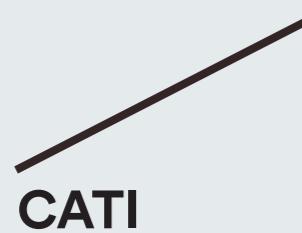
CATI

제105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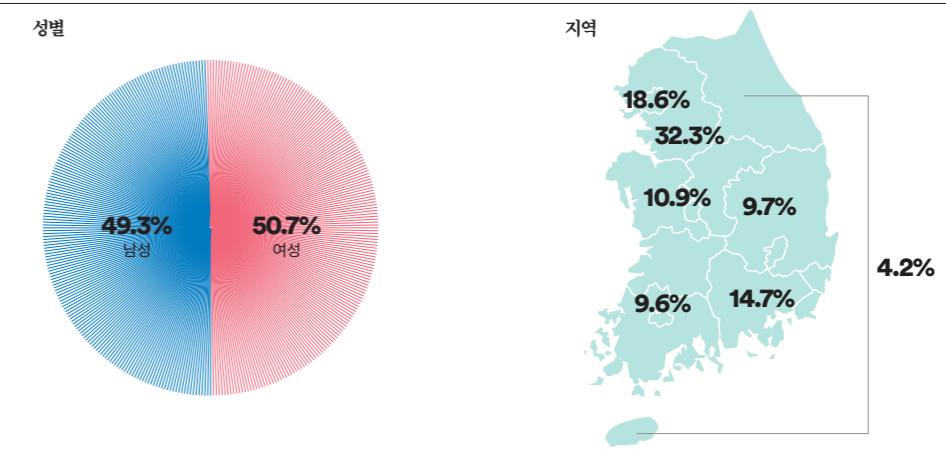
모집 단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3.4% [총 통화시도 7,514명]
조사기간	2025년 3월 7일 ~ 3월 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5	100.0	1005	100.0	1.00
성별	남성	495	49.3	498	49.6
	여성	510	50.7	507	50.4
연령	18~29세	157	15.6	155	15.4
	30대	152	15.1	150	14.9
	40대	173	17.2	175	17.4
	50대	201	20.0	197	19.6
	60대	175	17.4	178	17.7
	70세이상	147	14.6	150	14.9
지역	서울	187	18.6	188	18.7
	인천경기	325	32.3	325	32.3
	대전세종충청	110	10.9	109	10.8
	광주전라	96	9.6	97	9.7
	대구경북	97	9.7	98	9.8
	부산울산경남	148	14.7	147	14.6
	강원제주	42	4.2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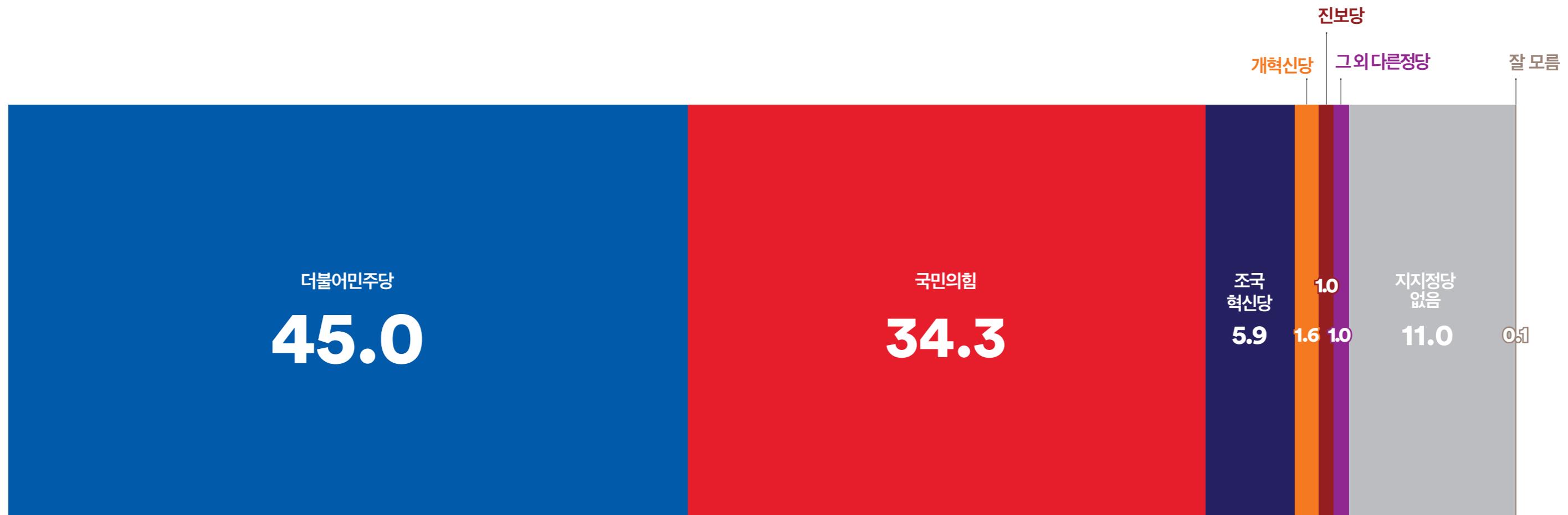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사이므로 결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군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cut-off: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값값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밀지도와 국경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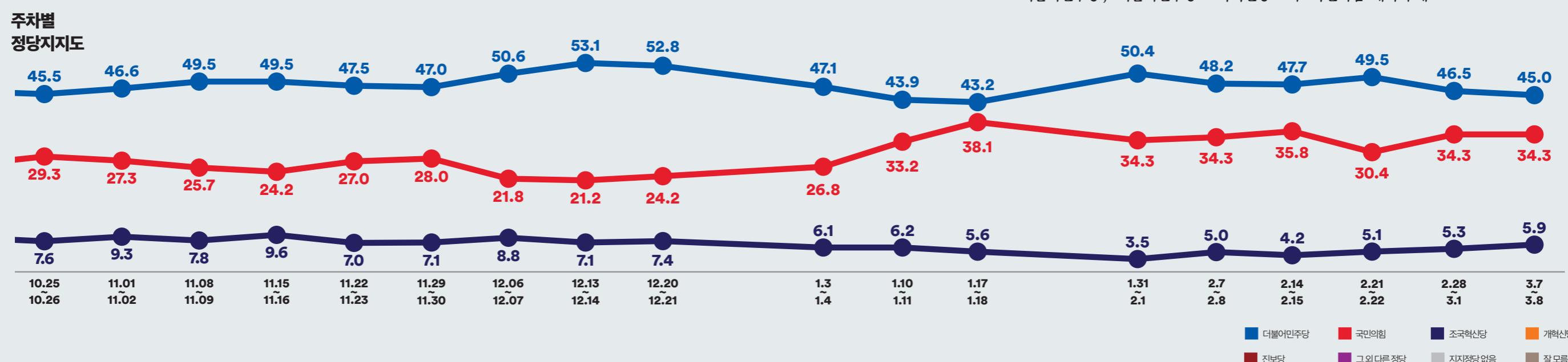


10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5%p 하락, '국민의힘' 변동 없음, '조국혁신당' 0.6%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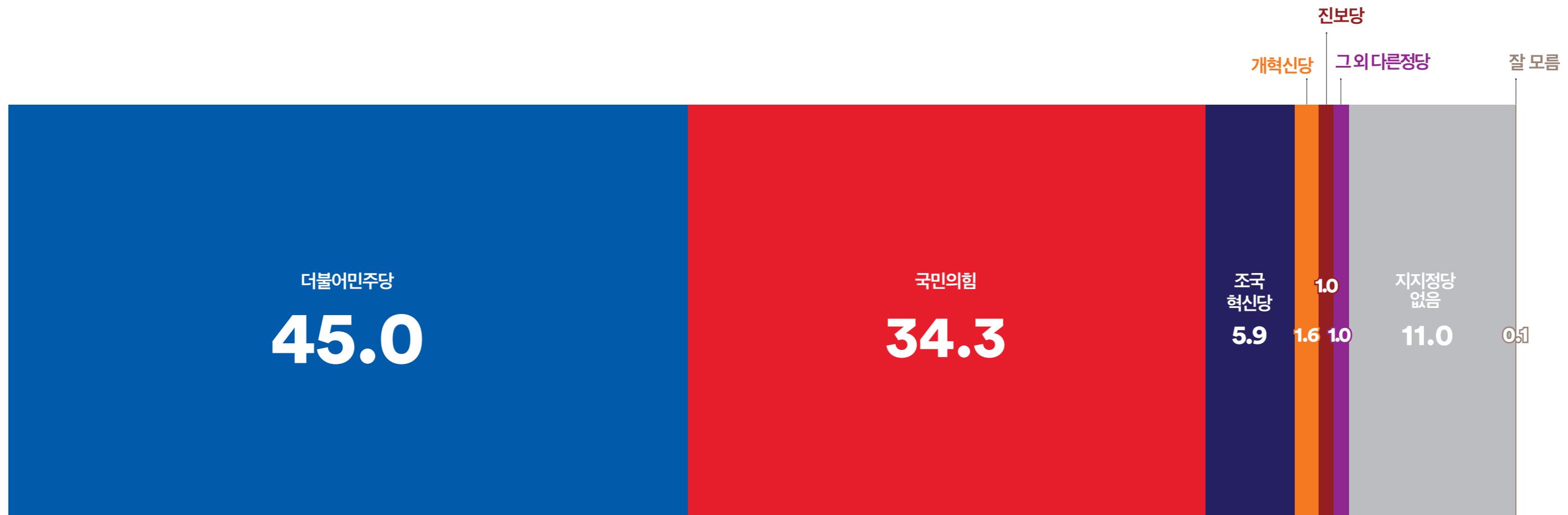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10.7%p (지난 조사: 12.2%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16.6%p (지난 조사: 17.5%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30~50대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6.9%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7.0%p(지난 조사: 30.2%p)

연령

18-29세	36.5	27.3	28.5	28.5
18-29남	27.1	35.6	30.3	30.3
18-29여	46.8	18.2	26.5	26.5
30대	45.8	26.5	6.7	17.3
30남	41.3	33.3	6.5	13.9
30여	50.6	19.1	6.9	21.0
40대	66.4	19.2	5.8	5.7
50대	52.8	27.0	9.4	6.5
60대	34.3	49.7	6.3	5.8
70세이상	30.6	58.0	2.1	1.5

이념성향

진보	72.8	7.5	9.8	5.7
중도	51.4	24.4	6.9	13.9
보수	15.1	73.1	2.1	5.6
잘모름	34.9	28.9	30.5	2.1

성별

남성	42.0	35.5	6.8	11.5
여성	48.0	33.1	5.2	10.6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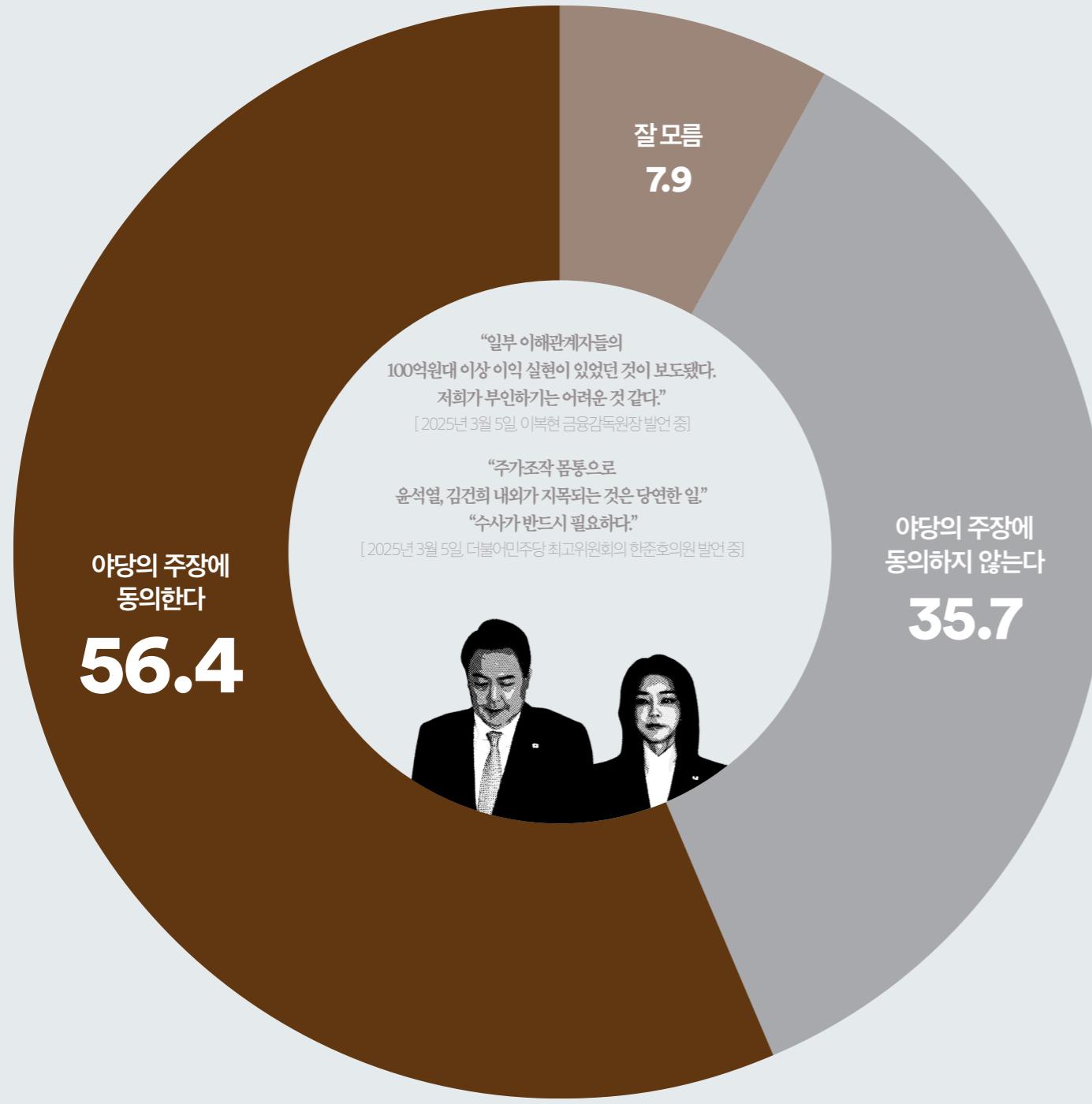
서울	43.3	33.7	5.9	13.9
인천·경기	50.8	30.3	5.2	9.6
대전·충청·세종	44.7	39.4	2.1	10.2
광주·전라	73.2	6.9	8.9	8.2
대구·경북	30.4	52.4	2.1	9.9
부산·울산·경남	30.4	45.8	8.2	11.1
강원·제주	29.4	34.8	14.0	20.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봄통

Q.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건의 봄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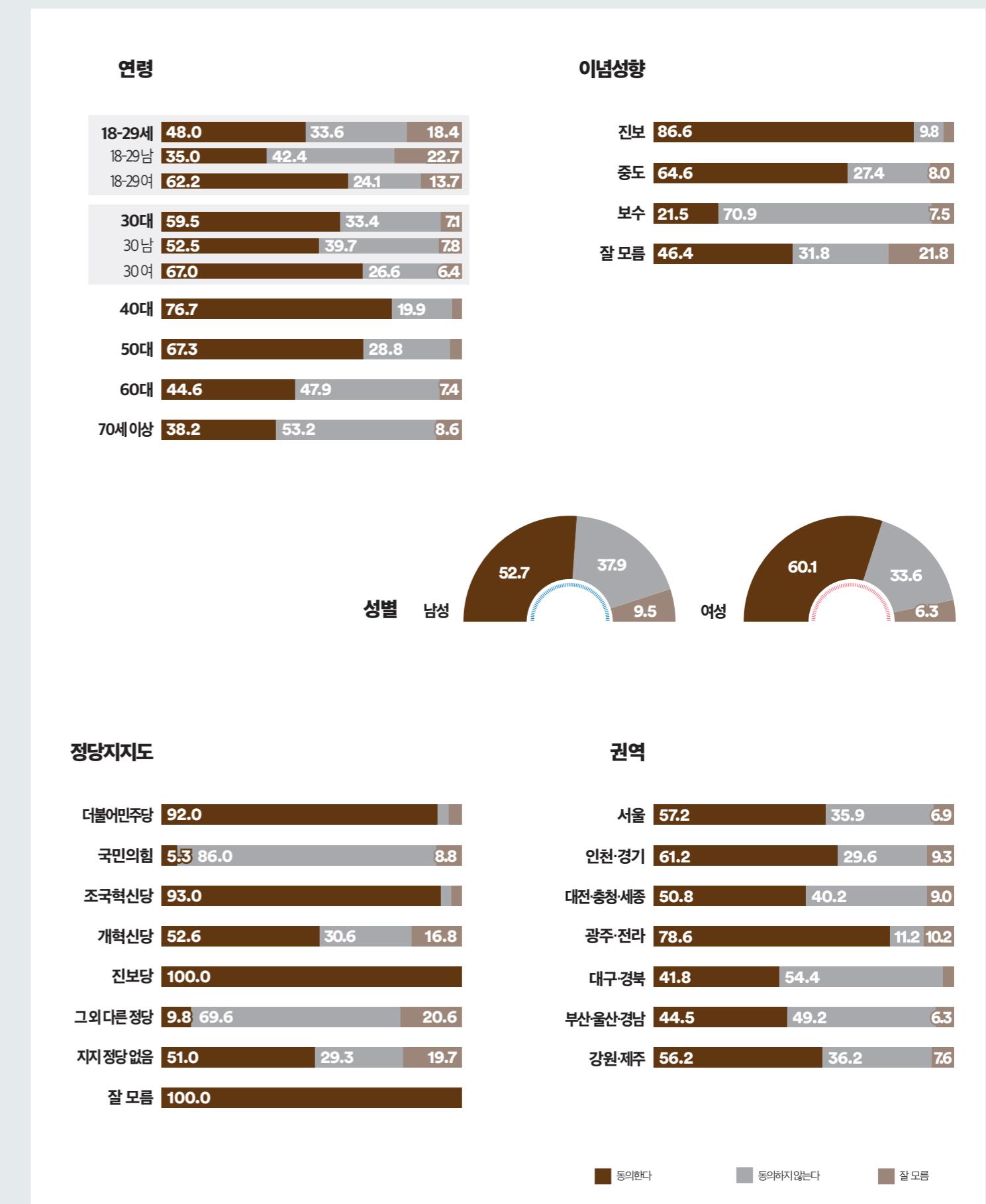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봄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0.7%p)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연령층, 중도층·진보층에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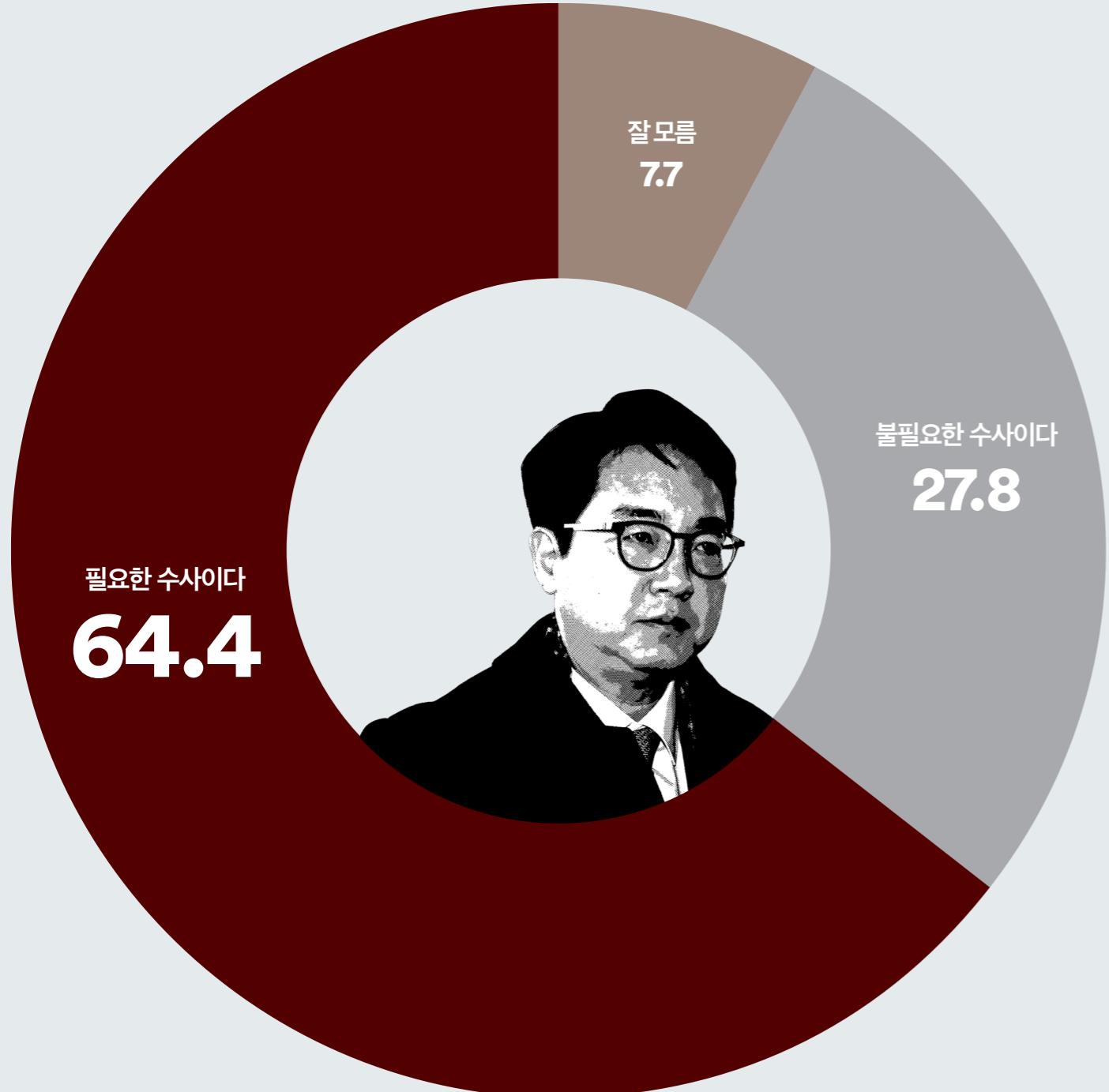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6.0%)과 보수층(70.9%)에서 우세를 보임

18-29세 남성층과 60대 이상 응답층, TK·PK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앞섰



Q. 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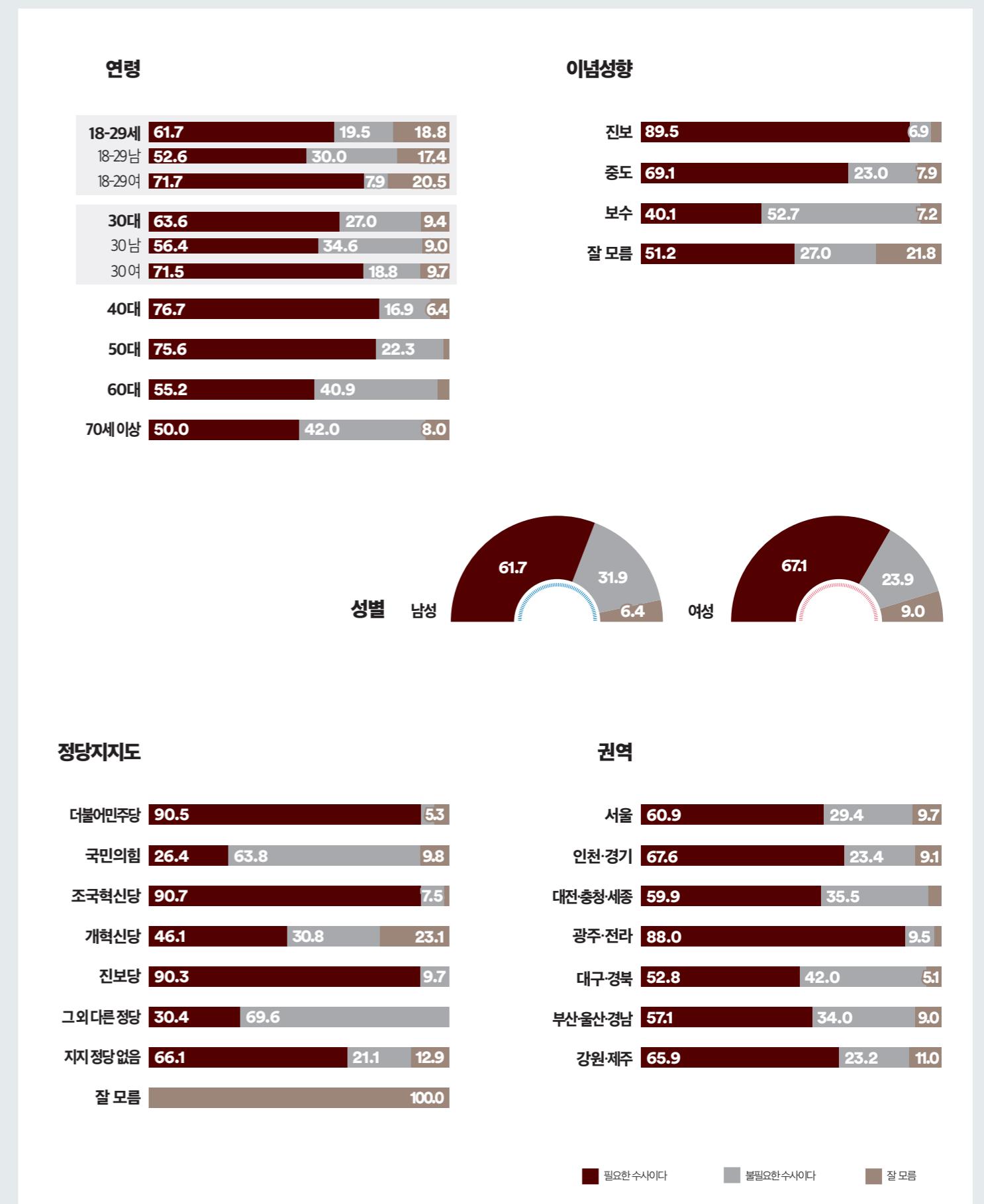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응답자 3분의 2 정도는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36.6%)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중도층 및 무당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3.8%)과 보수층(52.7%)에서 우세를 보임



검찰과 내란

Q.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시 대검 부장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후 선관위로 출발했다'는 제보내용을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적 통화였고, 선관위에는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다

57.8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습니다"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22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0시 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브리핑 내용 중]

검찰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30.8

"A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한 것"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쟁기라고 당부하였을 뿐"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른 검찰 입장문 중]

잘 모름

11.3

10명 중 6명 정도가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27.0%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검찰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60.1%)에서 우세를 보임

보수층과 18-29세 남성층,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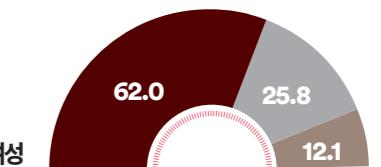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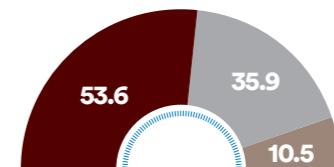
연령

18-29세	51.3	32.4	16.3
18-29남	43.7	42.3	14.1
18-29여	59.6	21.6	18.7
30대	60.8	29.6	9.6
30남	56.5	35.8	7.7
30여	65.4	23.0	11.6
40대	72.7	20.8	6.4
50대	65.5	25.5	9.1
60대	50.5	38.0	11.5
70세이상	43.0	40.6	16.4

이념성향

진보	79.5	13.4	7.1
중도	58.5	30.6	10.9
보수	42.7	47.0	10.4
잘 모름	45.4	24.1	30.5

성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2.3	9.7	8.0
국민의힘	26.9	60.1	13.0
조국혁신당	78.6	8.5	13.0
개혁신당	34.5	59.6	5.9
진보당	80.2	10.1	9.7
그외 다른 정당	29.7	60.5	9.8
지지 정당 없음	47.3	33.0	19.6
잘 모름	100.0		

권역

서울	54.0	38.5	7.5
인천·경기	57.4	29.0	13.6
대전·충청·세종	53.8	34.6	11.6
광주·전라	69.3	16.9	13.8
대구·경북	56.9	35.4	7.7
부산·울산·경남	58.4	32.4	9.2
강원·제주	62.6	17.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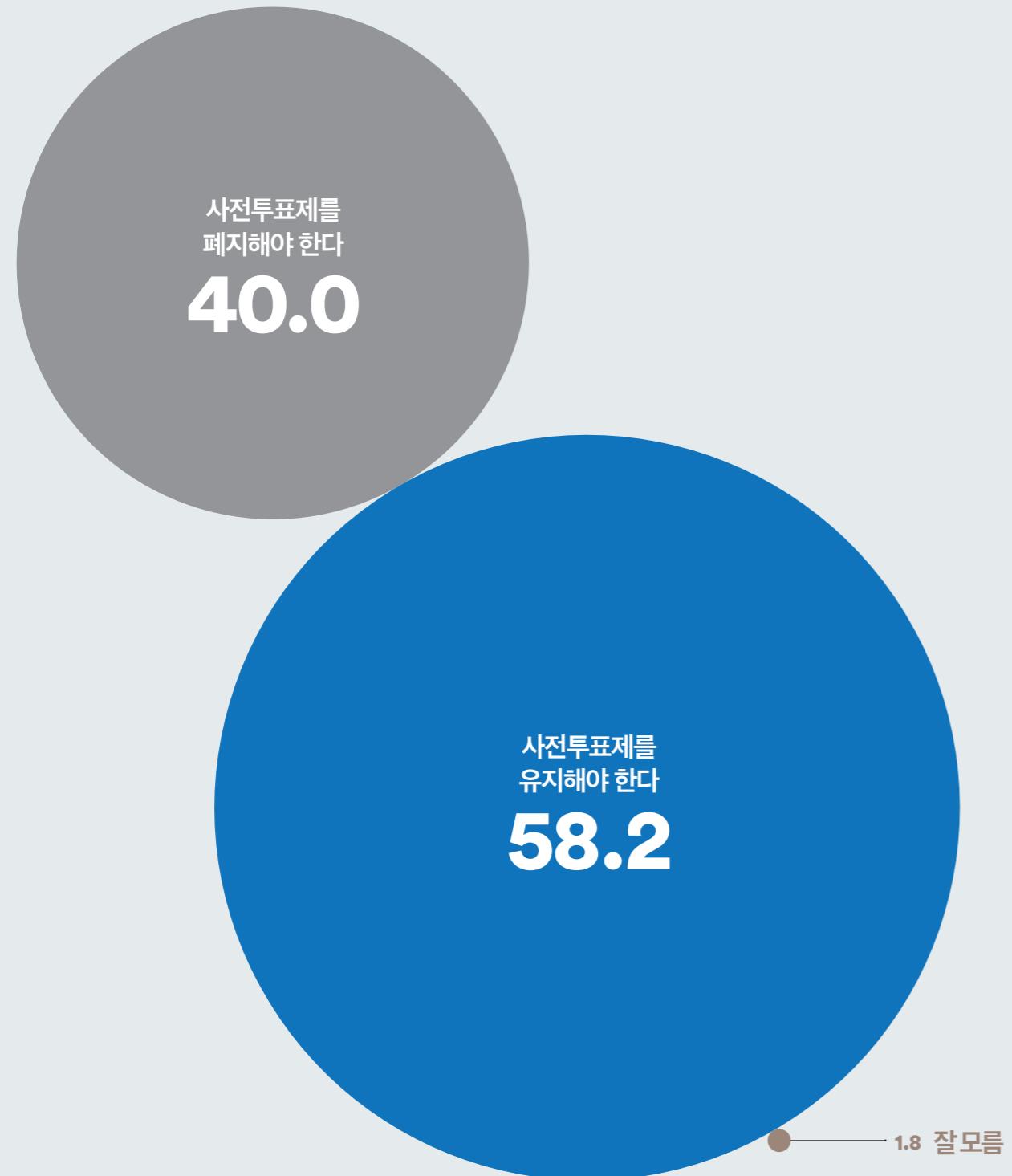
관여했을 것이다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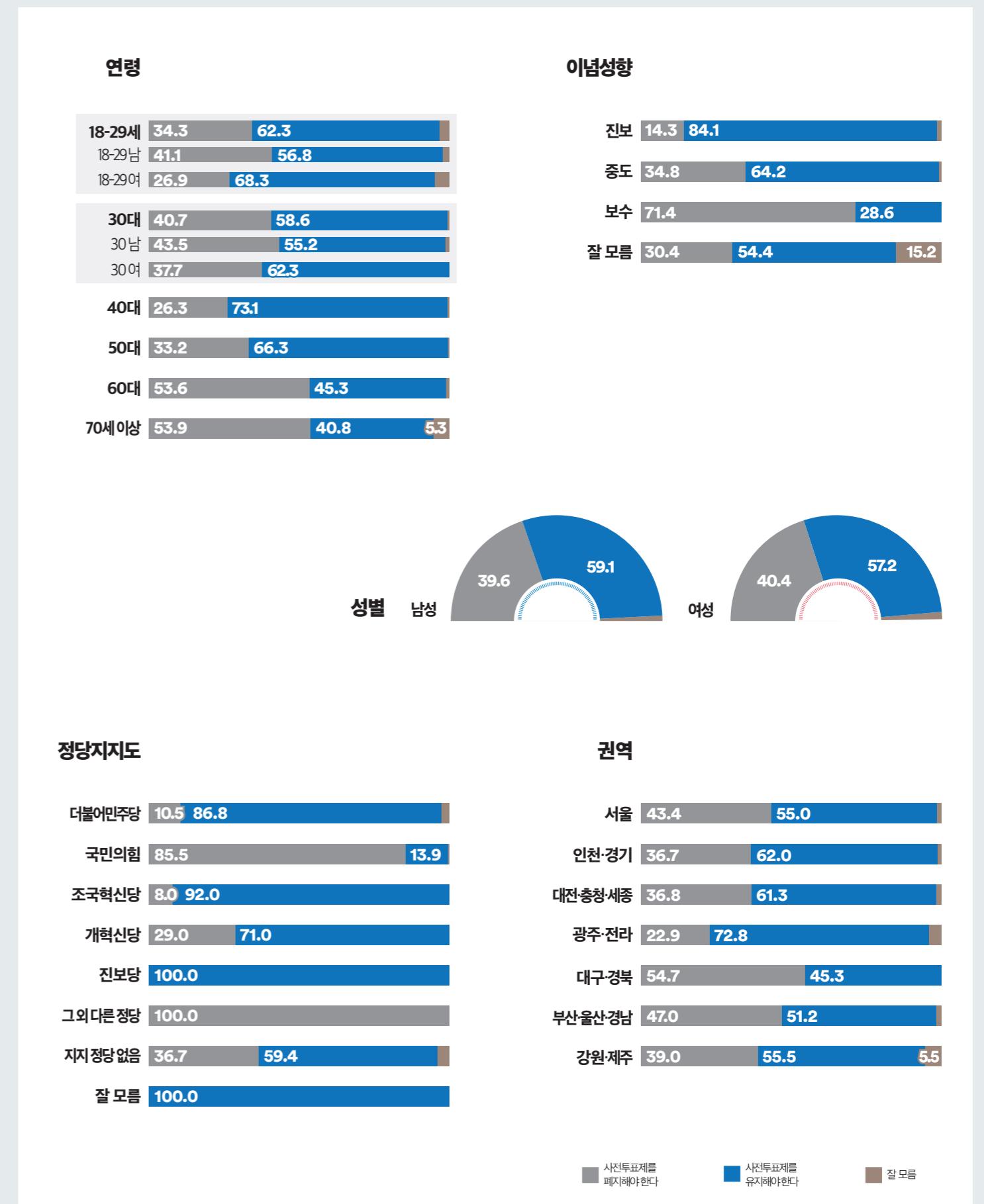
잘 모름

사전투표제

Q.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18.2%p)
50대 이하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중도층 및 무당층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윤석열과 군통수권

Q.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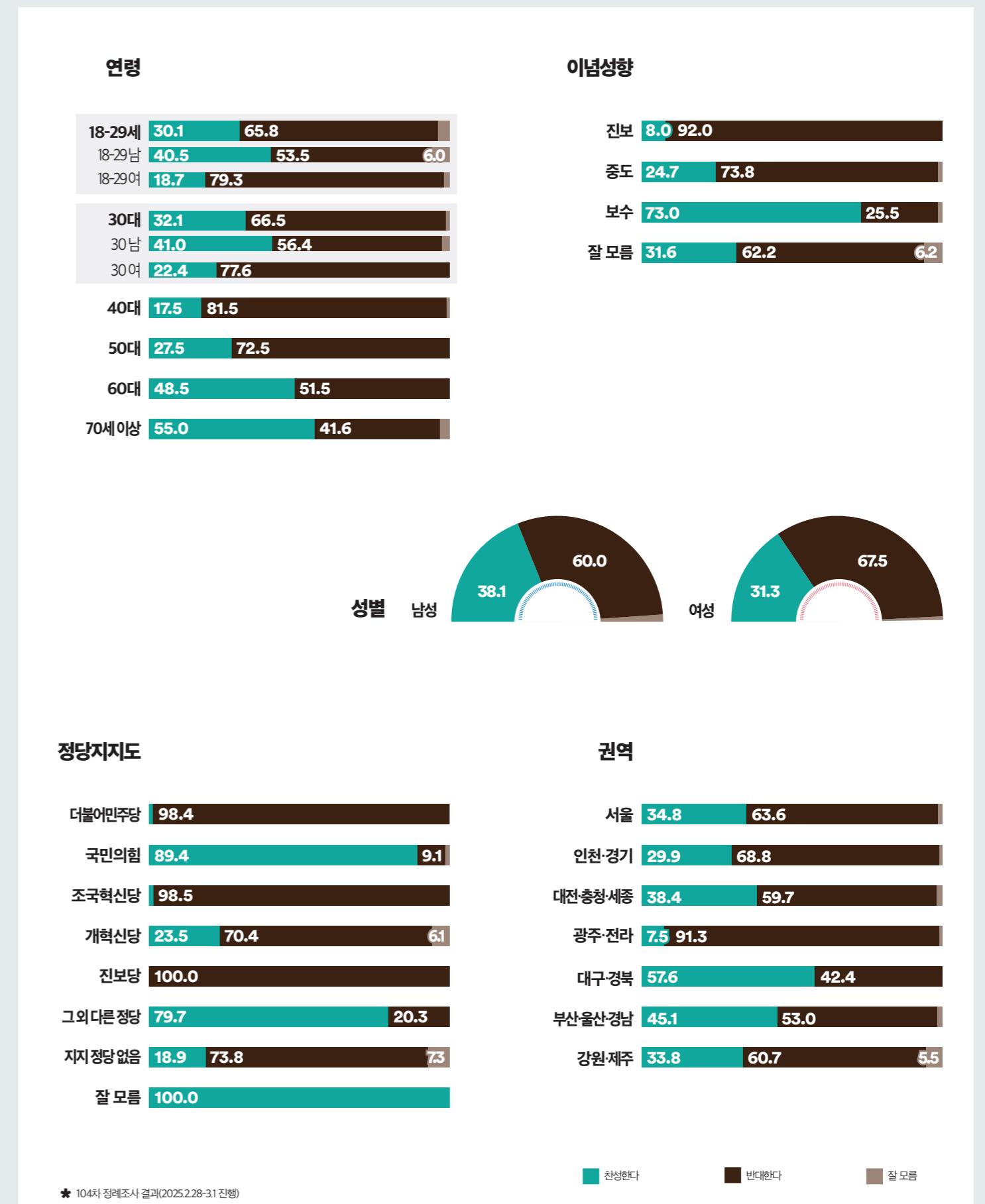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9.1%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2.0%)과 중도층(73.8%), 무당층(73.8%)에서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9.4%), 보수층(73.0%)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3_02

